

## 석유개발과 석유문명의 정신: 타이타스 빌과 스피들 톱의 정신

### 이 승 제

전 한국석유공사 부장

그리스의 비극 시인인 아이스켈로스 (525 - 456 BC)는 희곡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를 썼는데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온 자, 문명을 가져온 자, 불의 보존자로서 인간에게 모든 기술과 과학 등 생존의 수단을 가르친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1788 - 1824)은,

‘그러나 그대의 <참을성 많은 기력> 속에서

대지와 하늘도 뒤흔들 수 없는 그대 <완고한 정신의 지속성>과 <거절성>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교훈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것이다’ 라고 프로메테우스를 찬양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정신은 오일맨 들의 정신과 일맥상통 한다. 역사상 위대한 오일맨 들의 행적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 하는데, energetic, persistent, visionary, astute, hunches, hyper-tension, uneasiness 등으로 대변된다. 요컨대 석유탐사란 그 어느 인간 행위보다 고귀한 인간 정신의 발현을 초래하는 행위다. 그 정신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불굴’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타이타스 빌에서 보여준 에드윈 드레이크의 불굴의 정신을 되새겨보자. 1859년 8월 27일 토요일 오후, 마지막 송금을 하며 작업 중단을 지시한 편지가 도착하기 전 엄청난 양의 석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조지 비셀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한 약국에서 시추로 석유를 캐겠다는 생각을 하는 등 드레이크 대령의 연유가 연상된다.

스피들 톱 대폭분에서 보게 되는 파틸로 히긴스의 꿈과 정력에 대해 언급하자. 기계공이자 목재상이었던 외팔이 파틸로 히긴스는 스피들 톱에 석유가 묻혀 있다고 굳게 믿은 꿈과 정력의 사람. 나중에 스피들 톱 사업을 주도한 캡텐 루카스는 석유탐사의 귀재인 구피와 갠리를 끌어들인다. 이 시기에 배

사슴곡의 이론이 적용되었다.

고귀한 인간정신이 오일맨 들에 의해 발현되어 20세기 석유문명의 주요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석유 문명 속에서 인간들이 빚어내는 온갖 행위는 경탄을 느끼게 하며, 인간 세계를 긍정하게 하고, 인간 세계에 애정을 갖게 한다고 생각된다.